미슐랭의 나라 프랑스도 반한 K-Food

aT, 파리서 K-Food Fair 개최… 150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최근 프랑스에서 BTS(방탄소년단)의 인기와 함께 영화 기생충의 깐느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진행 된 K-Food Fair에서도 한국 농식품의 인기 또한 뜨거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K-Food Fair를 개최, 3,2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EU지역의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열린 파리 K-Food Fair는 국내 21개 수출업체와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13개국에서 초청된 34명의 유력 식품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김치, 막걸리, 음료, 면류, 신선버섯, 즉석조리식품 등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B2B전문 수출 상담회였다.

식품트렌드 중 하나를 'Pacific Rim Flavors(환태평양지역의 맛)'로 뽑은 프랑스의 미슐랭(Michelin) 가이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추장으로 만든 즉석떡볶이는 15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고 오미자음료는 1002만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맛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오미자음료와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의 참가바이어는 "프랑스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을 지녀 다양한 음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EU전역에서 불고 있는 유기농과 비건식품 열풍에 힘입어 한국산 유기농 쌀조청과 쌀스낵, 순수 원물간식인 고구마말랭이도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행사기간 동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지 수출성공사례와 유럽시장 특성에 대한 전문세미나도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K-Food Fair를 개최, 3,2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5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의 저자로 잘 알려진 켈리 최는 유럽 10개국에서 800개의 스시판매점을 일궈내며 경험한 다양한 성공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파리 K-Food Fair는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기가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aT는 주요 권역별 수출시장의 성숙도를 감안한 통합마케팅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아시아틱 백합 국산화에 '앞장'

국립한국농수산대학, 11개 품종 개발… 화훼농가에 보급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분화, 조경용 아시아틱 백합의 국산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품종개발을 진행해 현재까지 11개의 아시아틱 백합 품종을 개발했고 이를 화훼농가에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틱 백합의 자생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분화·조경용 아시아틱 백합의 경우 연간 약 50만개 가량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 분화·조경용 백합 구근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막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산업에 부담이 되었고 우리가 원하는 품종을 원하는 시기에 수입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한농대 화훼학과 송천영 교수가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원예종자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틱 백합 국산화를 위한 품종 연구에 돌입했고 현재까지 '딥레드리아송, 옐로우리아송, 로즈리아송' 등 아시아틱 백합 11개 품종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농대에서 개발한 아시아틱 백합의 경우 땅에서 꽃까지의 길이(초장)가 30㎝~50 내외이고 작은 화분에서 심기 적합하며, 조경용의 경우 한번 심으면 매년 꽃이 피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꽃송이가 기존보다 많고 화색이 다채롭고 선명하여 수입 아시아틱 백합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상품성이 좋다는 것도 특징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미 내병성과 내한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과 기후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틱 백합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열티) 부담 등을 완화해 국내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농대는 개발한 아시아틱 백합의 빠른 보급을 위해 5개 업체에 10차례 기술이전을 하는 등 산학협력을 통해 화훼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곤명에서 현지 시험 재배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016년부터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롯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품종에 대한 품평회를 진행해 상품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재배방법과 향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공개강좌도 병행하고 있다.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한농대의 설립목적은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우리나라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K-POP의 가치를 높인 것처럼 한농대에서 개발한 아시아틱 백합이 K-Flower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우수농업법인 현장 방문 영농성과 점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농업법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발품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18일 김제시에 위치한 늘품농장과 하랑농장을 농업·공공금융 부문장인 정용석 부행장, 농업금융 컨설턴트와 함께 방문하여 영농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귀농인인 늘품농장 문성혁 대표(42)는 귀농을 꿈꾸던 중 지인의 소개로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신청하여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향후 사업계획을 구상했고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저리자금을 지원받아 오이농장을 신축하여 2018년말 영농을 시작했다.

문대표는 "컨설팅을 통해 기술, 지역융화, 판로개척 등의 중요한 일을 해결할 수 있었고 지금의 귀농생활이 너무 만족스럽다"며, "성공귀농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금융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 여러모로 살펴보겠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농협 부녀회, '사랑의 감자'로 9년째 나눔실천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 부녀회(연합회장 이원영)는 최근 휴경지에 직접 심고 수확한 감자 100여 박스를 삼성애육원·일맥원 등 아동복지시설 3곳, 목양원·신애원 등 장애인이용시설 10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원영 연합회장은 "봄에는 감자로 가을에는 김장김치 나눔으로 9년 동안 꾸준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녀회장님들께서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에 가능했다"며 "올해는 농협 직원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셔서 더 의미 있는 봉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기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최근 칠보농협 벼 공동 육묘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농협, 정읍서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는 지역본부 경영기획단·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조천형)·농신보정읍센터(센터장 정수조)·칠보농협(조합장 권혁빈) 임직원 30여명이 칠보농협 벼 공동 육묘장을 찾아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최근 밝혔다.

일손돕기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일손 돕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과의 상생이라는 농협의 이념 실천을 위한 행사이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곳에 영농지원을 진행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촌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익산 배산 신일 해피트리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익산 배산 신일 해피트리'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유한회사 호로서, 주택위치는 전북도 익산시 모현동 1가 524-4 일원이며, 특별공급 주택세대수는 총 8세대(84A형 8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9년 6월 25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